

다산포럼

허시명



[오피니언]

섬을 여행할 때면, 나는 섬 토박이에게 두 가지 것을 꼭 물어본다. “이 섬에서 살다간 사람 중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섬에서 최고로 술 잘 빚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다. 아직까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적은 없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1758~1816)이 숨을 거둔 우이도 진리에 갔을 때도 마찬 가지였다. 짐짓 정약전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말에 토박이 문종옥 씨는 자신의 5대 조인 문순득(1777~1849)이라는 이름을 꺼내놓았다.

문순득은 누구인가? 1801년 1월 18일 배를 타고 흥어를 팔려나갔다가 표류하여 필리핀, 마카오를 거쳐 중국대륙을 지나 압록강 건너 1805년 1월 8일에 우이도로 귀환한 인물이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문순득을 반긴 이는 정약전이었다. 당시 정약전은 흑산현 소속인 우이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정약전은 문순득에게 개국 이래 처음으로 면나리를 떠돌다 왔다는 뜻으로

‘천초(天初)’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글을 물렀던 문순득의 체험담을 듣고 ‘표해시말(漂海始末)’이라는 기록을 남겨두었다.

토박이 문종옥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당 쪽에 새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문체 옥 씨는 출타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지만, 문순득이 살았고 문순득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약전이 물렀던 옛집을 보자 내 가슴이 뭉클했다.

아쉬운 것은 문순득의 옛집에 아무런 현관도 안내판도 걸려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문순득의 옛집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자 후손인 문체 옥 씨의 바람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흑산도를 여행했을 때, 정약전이 물렀던 사촌서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근

인물이다. 이강희는 정약전이 숨지고, 스승 정약용이 해배되어 집으로 돌아간 직후인 1818년 10월 경에 우이도를 다시 찾아 문순득을 만났다. 이강희는 문순득을 만나 정약전이 미처 듣지 못한 외국 선박과 차량에 대한 얘기를 듣고 문집에 남겨놓았다.

이강희가 남긴 문집 두 권 ‘유암총서’, ‘운곡집자’는 문순득의 후손인 문체 옥 씨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이 모든 얘기가 오늘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순득 씨의 옛집 뒤편으로 정약전이 물렀다는 집터도 전해온다. 정약전이 우이도 굽봉산과 떠벌너머 백사장도 자주 찾았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우이도를 찾는 사람들은 우이도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우이도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비로운 모래산이 있어서 피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이다. 하지만 우이도에 정약전에 물렀고, ‘표해시말’의 주인공 문순득이 살았던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문순득의 옛집에, 정약전이 살았다는 집터에 작은 풋발 하나라도 걸리기를 소망한다.

〈여행작가·술기행가, 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전이 찾았던 우이도 옛집

듣고 있자니, 내게는 문순득과 정약전이 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문순득은 정약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체험을 남기고, 실학자인 정약전은 문순득을 통해서 외국과 해양의 사정을 기록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옛집에 물렀던 역사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다.

‘표해시말’의 글을 자신의 문집 ‘유암총서’에 담아 전한 이강희라는 인물이다. 이강희는 해남에 유래돼 있던 정약용의 제자로, 정약용과 정약전의 연락책을 했던

래에 복원된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그에 견주면 문순득의 옛집은 비바람에 빠락해 가고 있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다. 문순득과 정약전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 한 집이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토박이 문종옥 씨는 문순득의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길 안내를 했다. 문순득의 속계 후손인 문체 옥(89살) 씨가 선조의 옛집이 더 훼손되지 않게 양철로 바람막이를 해둔 채, 뒷마

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에너지 불감증은 심각하다.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차량 이용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차량은 소형차보다 중·대형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경차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불감증이 정부와 자체, 민간에 뿐만 아니라 박혀 있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훌짝제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제외된다. 기존의 요일제나 5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민원인도 훌짝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7%에 달한 상황에서 전 국민의 고통분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자동차 훌짝제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 불감증이 사라지고 에너지 절약정신이 확산되길 바란다.

시설

공공기관 차량 ‘훌짝제’ 민원인도 동참해야

오늘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훌짝제(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 끌 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 날에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자동차 훌짝제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비상등’이 견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는 절박함에서 시행된다. 유례없는 초고유가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6개월여 만에 국제유가는 50% 이상 폭등하며 배럴당 14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에 배럴당 17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기의 고공행진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세계 6위의 석유소비대국인 우리 가정과 직장, 국민경제를 옥죄는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의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방울의 석유도 아껴야 하는 절박

日 ‘독도 영유권 명기’ 단호히 대응하라

식화한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는 역사의 문제일뿐 아니라 영토 주권과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뜻밖이었다.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키로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은 일본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리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말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후안무치한 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유화적 자세를 거두고 외교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정치권도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스크림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6·25 직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60년대부터 5월, 10월짜리 ‘아이스끼끼’, ‘하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주여의 부라보론은 70년대 초 단생했고 비닐주머니를 이빨로 뜯어, 빨아먹는 맛이 일품인 50원짜리 쭈쭈바는 76년에 출시됐는데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그래도 90년대 이후 저렴한 제품들이 쏟아지기 전까지 서민 자녀들은 맘껏 먹을 수도 없었는데 요즘 또다시 값이 올라 청소년들의 이를 바우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때 그 시절 뇌리까지 박힌 달콤함이 아련한 추억

으로 있으면 되갔지’라는 등의 협박에 시달리며 고통을 치렀고 사과문을 쓴 뒤 겨우 풀려났다.

북한과 관련된 또 다른 아이스크림 일화는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던 판문점에서 일이다. 우리측 관계자가 북한 측 대표단에게 부라보론을 권하자 깜짝 놀란 그들은 ‘이거 미제 아닙네까’라고 불쾌해 했다 한다. 호의로 권했을텐데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다.

아이스크림의 탄생설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중국과 이탈리아 등 동서양으로 분분하지만, 상용은 아하지만 아이스크림 이상으로 서로를 부드럽게 녹이는 촉媒제도 필요한 때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오춘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손자·손녀 등과 함께 아침식사 자리에서 손자의 밥숟가락에 반찬을 옮겨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가족이란 한 가정을 이루는 식솔을 말하며 가정은 가족이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 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렵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부부 또는 나홀로 밥상을 지키는 게 다반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산업발달로

육비 부담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근로환경도 저출산 사회를 도래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학가족화는 결혼관·학화와 독신주의 문화를 낳게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한세대당 1.8명을 달성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연차사업으로 32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회원 광주·전남지회를 간사단체로 지정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기업, 언론기관 등과 함께 ‘출산양육후원협의회’를 출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단체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이 막뿐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많은 예산지원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과 기업이 적극 나서 결혼친화적 환경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적극 나서야 한다. 조만간 우리 사회도 마음 놓고 자녀를 낳는 환경이 조성돼 꼭꼭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희망의 나라가 됨을 꿈꾸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 정도로 만족(晚婚) 또는 결혼 기회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한 세대당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를 고집해 별다른 일이다.

인구보건복지회원 광주·전남지회본부장

아이들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

인한 가정해체로 학가족화가 됐다는 얘기다. 인구는 국력이고 성장 잠재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저출산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는 3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선진국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출산 국가로 바뀐 이유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학가족화가 이뤄졌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결혼 후 출산은 당연한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게 됐다.

저출산 국가로 바뀐 이유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학가족화가 이뤄졌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 출산은 당연한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 정도로 만족(晚婚) 또는 결혼 기회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한 세대당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를 고집해 별다른 일이다.

인구보건복지회원 광주·전남지회본부장

車보단 사람이 우선… 불필요한 경적 울리지 말아야

못 생겨서 더 좋은 꼬리감기원숭이



몇 달 전에 들어와 적응시켜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너석이다. 동물명은 ‘갈색꼬리감기원숭이’이고 닉네임은 ‘조폭 두목’이다. 구렛나루를 기른 듯한 시커먼 얼굴이 마치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는 인기 있는 동물군이 있는데 하나는 이처럼 아주 뜯어졌거나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아니면 공작처럼 아주 이쁜 동물이다. 못 생겨서 인기가 있는 것도 동물원만의 특별한 현상일 것이다.

꼬리감기원숭이는 물론 완벽한 사지(四肢)를 가지고 있지만 나무 위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꼬리 끝 안쪽에 마치 손바닥처럼 지문이 있고 털이 없는 각질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조직에는 일반 동물들 꼬리처럼 빛나는

신경이나 혈관이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잘 발달되어 손과 같은 정교한 불잡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몸의 몸무게를 얼마동안 지탱할 만큼 완력도 세다. 꼬리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좋아하는 나무열매를 따는 일이나 곤충 잡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여유있는 기관 하나가 이들의 삶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었음을 물론이다.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이들의 꼬리감기 재주를 거의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 밖에도 꼬리가 보다 더 큰일을 하는 동물로는 꽁거루(몸을 지지), 도마뱀(재생꼬리), 여우(보온) 등이 있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농촌 가난하고 살기 힘들다는 편견 버리길

임신 7개월 째, 얼마전 회사에서 뇌리

를 들을 수 있고 구별할 능력이 있다며 태아

가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를 오래 들으면

여수가 감소하고 자칫하면 조산할 수도 있다

는 것이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

지 않는다.

언젠가 일본에 갔을 때 온종일 차를 타면서 자동차 경적소리에 깜짝 놀랐다. 무방비 상태에 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순간적으로 뱃속의 태아가 놀랐던지 차를 타면서 경적소리에 깜짝 놀랐다. 무방비 상태에 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 저녁에 태아가 걱정이 돼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진찰을 받았다. 당시 의